

# 농산물 브랜드 '상큼애' 올 매출 170억 노린다

### 농협 전남본부, 지난해보다 60% 늘려... 품목에 배 추가 아열대 작물 애플망고 주력 '오매향' 출범 매출 20억 목표



전남 농산물 브랜드 '상큼애'가 전국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농협 전남지역본부 가 목표 매출을 60% 늘렸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아열대 농산물 '오매향' 브랜드는 애플망고가 주력 상품으로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17일 '산자유동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사업전략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올해 '상큼애' 품목에 배를 추가하고 목표 매출을 17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매출 106억2800만원 보다 60% 증가한 금액이다.

1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운 배 품목은 벌고·순천·신북농협이 납품할 계획이다. 올해 '상큼애' 광역연합사업에는 구례·남주·강진·삼서·삼계·삼호·평광농협 등 18개 지역 농협이 참여한다.

전남본부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의 하나로 전남 광역 브랜드 '상큼애'를 키워왔다. 지난 2016년 단감을 내걸고 시작한 '상큼애'는 해를 거듭하며 무화과, 사과, 만감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했다.

지난해 '상큼애' 브랜드를 단 이들 품목 가운데 무화과가 71억4100만원 판매고를 올렸고 이외 ▲단감3억5200만원 ▲만감류 2억600만원 ▲사과 1억3200만원 등 매출을 기록했다. '상큼애' 직거래 비율은

54%로,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부산을 기반으로 한 메가마트·서원마트, 기관 급식에 납품됐다.

'상큼애' 광역연합사업은 산지별 품질 상황평준화를 취지로 시작했다.

상큼애 상품의 평균 단가는 kg당 2968원으로, 도매시장 단가(2097원) 보다 41.5% 높게 쳐진다. 지난해 상큼애 취급 물량이 2406t임을 감안하면 농가에는 20억9500만원이 더 돌아간 셈이다.

생산자 조직은 상큼애 판매액의 0.5%를 적립해 지난해 말 기준 6238만원에 달하는 자조금을 조성했다. 자조금은 농가

조직화와 마케팅, 브랜드 관리·홍보에 쓰이고 있다.

전남본부는 이달까지 '상큼애' 참여희망 조직을 접수한 뒤 상반기 중 대형마트 구매 담당자와 도매시장 경매사 등을 대상으로 '바이어 초청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한 해 동안 선진지 견학, 농가교육, 사업평가회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첫발을 내디디는 아열대작물 브랜드 '오매향'에는 애플망고가 필수로 나선다. 현재 전남 애플망고 재배지역은 23ha

로, 강진·고흥·광양·담양·보성·여수·영광·완도·진도·해남 등 23개 농가가 있다. 올해는 3개 농가가 '오매향' 사업에 참여해 20~25t 물량을 납품할 계획이다. 이들 농가의 목표 매출은 20억원으로 내년까지 매출을 50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남본부는 점차 강진·완도에서 나는 바나나와 광양·담양·무안·순천·화순에서 재배되는 백향과 등 참여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기후 온난화에 미리 대응하고 지역 주요 농산물을 고소득 작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열대작물 육성"이라며 "농업·농촌·농업인과 소통을 통한 농가 실익 위주의 농산물 유통구조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17일 지역본부에서 '산자유동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브랜드 '상큼애'와 '오매향'이 전국 소비자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유통망을 넓힐 계획을 세웠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광주 전문건설업체 지난해 3조21억 공사 '역대 최고'

### 전남 전년비 2.7% 감소한 3조8506억 신고...전국 4위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공사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도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줄었지만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2019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광주 1235개 전문건설업체 중 1153개사가 신고한 기성실적 총액은 3조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2%나 상승한 것이다. 2017년 2조5590억원, 2018년 2조6803억원에 이어 광주시회 창립 이래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광주시회 평가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17.1%가 증가하며 4321억원을 기록했고, 하도

급 공사는 11.2% 증가한 2조5699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공사실적 총액 1위는 977억원을 신고한 삼지건설(주)으로, 2위는 855억원을 신고한 대산산업개발(주), 3위는 753억원을 신고한 ㈜지형건설 등 순이었다.

이서길 광주시회 회장은 "3년 연속 호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회원사들이 노력하고 합심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종합건설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도 공사 수주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의 실적 신고 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3410개 전문건설업체 중 3143업체가 전년 대비 1081억(2.7%)이 감소한 3조 8506억원을 신고했다.

공사 실적 감소는 SOC 예산 축소와 대

형 전문건설업체들의 광주·전북 등 타 지역 진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남도회 분석이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4위의 실적을 거뒀고, 전문건설 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국내 건설공사 현장을 발로 뛰며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치면서 원도급 공사 수주는 전년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실적 총액 1위는 1670억원을 신고한 도양기업(주)으로 9년 연속 실적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다스코(주)(758억원) 3위는 ㈜신진건설산업(536억원) 순이었다.

오종순 전남도회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와 생산체계 개선 등 어려운 환경에서 도 노력을 다하는 회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업역 확대 등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예비 창업자 자금 1억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 초기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전남·제주지역에 창업할 94명이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39세 이하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신청자격도 공고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0명,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39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15명,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10명 등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08.88 (-33.29) ↓ 금리(국고채 3년) 1.27 (-0.05)
- ↓ 코스닥 682.92 (-9.67) ↑ 환율(USD) 1189.50 (+5.60)

## 아시아나항공, 비상경영 선포

### 대표이사 등 전 임원 사표 제출 임원 30%, 조직장 20% 급여 반납

아시아나항공이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급여를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사장은 18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한 일관적 약화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수요가 크게 위축돼 회사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등 특단의 자구책 실천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전 임원들은 급여 30%, 사장은 40% 반납하고, 모든 조직장들 역시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진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좌석 기준 중국 노선은 약 79% 축소됐고, 동남아시아 노선은 25%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운항, 캐빈, 정비 등 유류인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직과 운항승무원, 개민승무원, 정비직 등 직원들은 10일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외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는 영업 외 활동은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 '아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조' 등 3대 노조와 함께 '위기 극복과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노사가 합심해 위기 극복을 다짐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1만6000여 전기공사기업 수장 누가 될까

### 20·21일 첫 직선제 회장 선거 류재선 회장 재선 여부 주목

전국 1만6000여 전기공사기업의 수장을 뽑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6대 회장 선거'가 20·21일 첫 직선제로 치러진다.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경남권인 가운데 보성 출신 류재선(62·사진) 현 회장의 재선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 중앙회장 직선제·단임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3파전으로, 김영창 동원전력 대표, 김갑상 상화전력 대표, 류재선 금강전력 대표(이상 가나다순)이 출마했다. 류 후보는 현 협회장으로,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23대·24대 회장과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분리발주 제도 강화 법제화 완성 ▲전기공사 하도



급제도 개선 ▲전기공사업 영영 확대를 위한 전기산업기본법 제정 ▲전기공사 노임, 품셈 적정성 확보 ▲시도회 최소 근무인원 증원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내걸었다. 지난 1990년 ㈜동남건설로 시작한 ㈜금강전력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24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김 후보는 전기공사협회 경상남도 회장을 지냈고 ▲협회비 기본회비 전면폐지 ▲회원사 퇴직연금제 도입 ▲오송사옥 건립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부산시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정착화 ▲적정공사비 확보 및 물품납품제도 개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강화 등을 약속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AI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 기업 모집

광주시에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2·3기 기업을 각각 10개사 내외로 선정해 실리온밸리를 방문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방문 전 현지

VC와의 사전 매칭을 통해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기업 중 AI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으로, 오는 28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